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라브렌디오스 대보제 순교자

마태오 제 9주일

성 마티아 사도

제 8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2응송 구세주 변모 축일 / 178, B 181
-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78, B 181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 I고린토 3:9~17 / 봉독서 194
- 복음경 : 마태오 14:22~34 / 113, B 4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라브렌디오스 대보제 순교자

예루살렘의 첫 보제이고 첫 순교자였던 스테파노스의 곁에는 박해시대 때 영광스럽게 희생이 되었던 로마의 첫 보제로 우리 교회에서 8월 10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라브렌디오스 대보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잡혀서 교회의 보물들을 달라는 박해자들에 대한 라브렌디오스 성인의 행동은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성인은 모든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자들을 모아서 마차에 태워 통치자에게 데려갔

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모본입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귀중한 성물도, 금은보화로 장식된 장식물도 성직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꼭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명의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 앞에 계시는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역풍을 만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고난에 처한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역경을 만나게 되었던 말이지요. 우리는 보통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적어도 시련이나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단 말이지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될게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환난과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 속에 두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배에 오르게 하시어, 풍랑을 만나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험을 당함으로써 겸손해지고 순수하게 되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성화를 이룬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까지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고난을 주십니다. 또 견디기 어려우면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개입하십

니다. 고린토1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서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모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온통 기쁜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복음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란한 세상살이에 눈이 가려져서 내 인생의 풍랑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고귀한 은총일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거룩한 실망...

(디오니시오스 탐바키스 신부)

어제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부님,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친구가 줄어들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이제 하느님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지요.

어떤 길 말씀인가요?

‘거룩한 실망’이라는 이름의 길이랍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길은 모든 것들이 당신을 떠나는 길입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꿈, 당신의 고국, 당신의 친구, 당신의 기쁨, 당신의 돈, 당신의 건강, 당신의 희망,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자신감과 확실성, 바로 당신의 생명, 당신의 과거와 미래 등등...

그러면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분의 달콤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때 당신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15일(토)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자분들이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더욱 더 성장하는 성당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월 1일 토요일에 성찬예배와 함께 소피아 김 유아의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정교인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여름 주일학교 프로그램.

공지해 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그래서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오는 8월 15~16일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프로그램에 모여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십시오.

###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여름 주일학교 프로그램.

공지해 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는 오는 8월 21~23일까지 성당에서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름 프로그램에 모여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예식



8월 15일(토) 성모 안식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이어서 광복절 영광식

